

목포권

30년만에 '눈물의 포옹'

생후 7개월만에 외국으로 입양됐던 아이가 29년만에 품에도 그리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극적으로 만났다.

키를 자신이 없고 형편도 어려워 핏덩이나 다름없는 아이를 보내게 됐다"면서 "이제 아들을 만나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다.

생후 7개월만에 노르웨이 입양 하선철씨 고향 해남 찾아 친아버지·누나 등 만나



하선철(오른쪽)씨가 아버지 하정순씨 10일 30년 만에 눈물의 재회를 하고 있다.

하씨는 아들을 부둥게 안고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 온 지난 날의 아픔과 재회의 감격이 교차한듯 한 동안 눈물을 쏟아냈다.

가 방송국 가족찾기 프로그램에 문의하는 등 백방으로 노력을 했는데 입양기관을 통해 지난 달 중순께 극적으로 돌아왔다.

하선철씨는 "아버지 등 가족들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정말 보고 싶었는데 만나서 너무 기쁘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친아버지와 가족들은 이날 선철군과 양아버지를 위해 개량 한복과 반지 등을 선물했으며 11일에는 선철군의 고향인 금강리에서 마을잔치를 열 계획이다.

목포 삼학도 '난영공원' 개장

노래비·시민 편의시설 등 갖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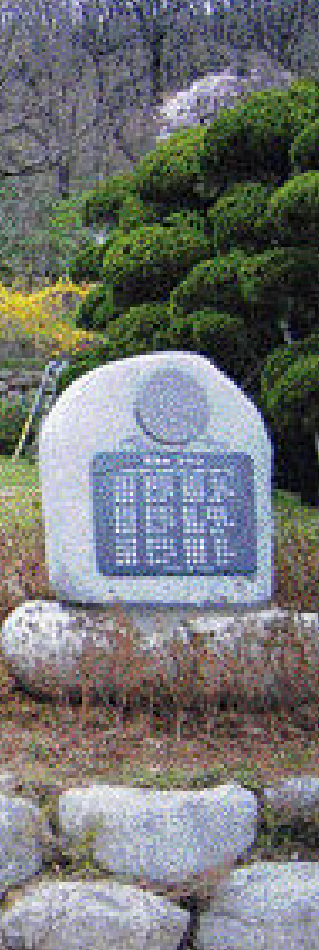
목포시가 '목포의 눈물' 고(故) 이난영 여사를 기념하는 '난영공원'을 삼학도에 조성하고 11일 오후 개장식을 갖는다.

목포시는 10일 지난달 25일 경기도 파주에서 41년만에 고향의 품으로 돌아와 수목장으로 안장된 대삼학도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이난영 타계일(1965년 4월 11일)에 맞춰 공원 개장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난영공원은 '목포의 눈물' '목포는 항구다' 노래비와 수목장을 지낸 '난영 나무', 넓고 쾌적한 녹지공간, 시민편의시설 및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노랫말 속의 유달산과 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최적의 장소에 자리 잡고 있다.

목포의 상징 삼학도에 난영공원이 조성됨으로써 관광객 및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난영공원 개장에 앞서 이난영기념사업회에서는 추모기념공연, 심포지움, CD음반 발매, 유품 전시회 등을 개최하고 있다.



목포=이상선기자 ssslee@

"신안 섬지역 방조제 보수공사 석재 무단전용 허위보도"

공갈·명예훼손 혐의 수사의뢰

목포해수청·건설사, 기자들 상대 법적대응 나서

특정 언론사기자의 신안군 관내 섬지역 방조제 보수공사에 사용되는 석재(捨石) 납품과정에서 보도에 관계기관과 공사업체가 허위보도라고 주장하며 해당 기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10일 신안군과 목포지방 해수청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S신문 신안주재 K모 기자는 신안군이 발주한 안좌면 읍동 등 3개소 방조제 개보수 공사에 목포 G토건회사가 목포 옥안지구 택지개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석재를 무단판매 했다는 제하의 기사내용을 보도했다.

또 K모 기사는 목포지방해수청 발주 사업으로 목포 G토건 건설회사가 수백

억 원을 들여 시공중인 신안군 흑산면 흥도 항만공사장에 사용해야 할 사석이 신안군내 방조제 공사현장으로 빼돌려져 무단 판매되고 있어 탈영이 일고 있으나 감독 기관인 목포해수청이 이를 묵인한 것처럼 보도해 목포해수청과 시공 건설회사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기사내용을 H시사일보와 B뉴스에도 제보해 보도토록 하고, 같은 내용이 청와대홈페이지에도 올려졌다.

S신문사 K모(49)기사는 목포 N 해운(해상운송업)회사 전무를 겸직하고 있는데, N 해운은 소유 채석장(진도군 지산면 S 석산)에서 반출되는 사석을 전남 서남부권 지역 방조제 보수공사에 납품해오고 있다.

신안군 관계공무원은 "K모 기자가 지난 2월 관내 방조제 보수공사장에 투입된 사석이 강도가 약하다고 말해 전남도 도로안전 관리사업소에 강도시험을 의뢰한 결과 약화한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기사를 보도한 후 회사를 중용했다"고 밝혔다.

목포해수청 역시 분청에 현지감사를 요청, 감사한 결과 보도내용이 '사실무근'으로 판명됐다. 목포 G토건 회사측도 "부실물인 석재반출이 허자가 없는데도 불법이라고 허위보도한 것은 목포법이 없어 법적 대응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수청과 G토건이 이들 기자들을 상대로 공갈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사건결과와 처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나무시장 인기

최근 자연생태 환경바람이 불면서 해남 산림조합이 대흥 사립구 사거리에서 상설운영하는 나무시장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나무시장은 75평의 하우스와 1천500여 평의 목목매장에 각종 조경수와 관상수, 조림 수종을 비롯한 불꽃 화분까지 각종 수종을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만도 1억2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공(公)-333 운동

333개 마을 이장과 결연 신안군 공직자 현장행정

800여개의 유·무인도서로 구성된 신안군이 공직자 1인 1촌 갖기 운동인 '공(公)-333 운동'을 펼친다.

10일 군에 따르면 행정에 대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반영하는 현장 행정 실천을 위해 다음 달부터 이 운동을 본격 전개하기로 했다.

군내 333개 행정 마을 이장과 공직자가 1대1로 결연을 하는 이 운동은 1일 1회 전화 통화와 월 1회 방문으로 지역내 각종 여론을 수렴하고 소외계층 안부 살피기, 민원 후견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 운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면서 "이 운동을 통해 주민 체감 행정이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다우공인중개사
용봉지구 근린상업용지
용봉지구 근린상업용지
장동동 일반주거지역

성공시대부동산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역
수원지구 신설 30m 도로점
운수동 매일업 사거리

금보부동산건설링
신창타워분양·임대
신창지구 인구 4만명의 10,000세대 APT중간에 위치

BK부동산(한국지사)
담양군 봉산면 기곡의 서쪽 첫마을 상주 인드르메다빌의 상경 북방 8900평 매각 (전,입야)

금호공인중개사
*상가
*1억~3억선 투자
*3억~5억선 투자

에셋코리아 부동산신설링·정기운법무사
법원경매
*아파트
*일야

다우공인중개사
용봉지구 근린상업용지
용봉지구 근린상업용지
장동동 일반주거지역

성공시대부동산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역
수원지구 신설 30m 도로점
운수동 매일업 사거리

금보부동산건설링
신창타워분양·임대
신창지구 인구 4만명의 10,000세대 APT중간에 위치

BK부동산(한국지사)
담양군 봉산면 기곡의 서쪽 첫마을 상주 인드르메다빌의 상경 북방 8900평 매각 (전,입야)

금호공인중개사
*상가
*1억~3억선 투자
*3억~5억선 투자

에셋코리아 부동산신설링·정기운법무사
법원경매
*아파트
*일야

다우공인중개사
용봉지구 근린상업용지
용봉지구 근린상업용지
장동동 일반주거지역

성공시대부동산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역
수원지구 신설 30m 도로점
운수동 매일업 사거리

금보부동산건설링
신창타워분양·임대
신창지구 인구 4만명의 10,000세대 APT중간에 위치

BK부동산(한국지사)
담양군 봉산면 기곡의 서쪽 첫마을 상주 인드르메다빌의 상경 북방 8900평 매각 (전,입야)

금호공인중개사
*상가
*1억~3억선 투자
*3억~5억선 투자

에셋코리아 부동산신설링·정기운법무사
법원경매
*아파트
*일야